유로지역의 향후 경제전망과 과제*

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4년 7월 14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공청회 기조연설에서 유로지역 경제전망과 최근 결정된 일련의 통화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약 5년간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언급함

☐ **유로지역은 역내 수요가 활성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실업률,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 등이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음**

— 2014년 1분기 유로지역 GDP는 0.2% 성장하여 4분기 연속 성장을 시현하였음

- 주요 성장동력은 역내 수요의 확대에 기인하며 2분기에 기술적 요인에 의한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기조가 유지될 전망임
- 아울러 2014년 6월 결정된 통화정책이 시행되고 금융여건이 개선되면 향후 2년간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임

— 유로지역 정책물가지수인 HICP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 10월까지 급락하였고 현재 1% 미만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음

- 연간 HICP inflation은 당분간 유지되는 가운데 2015년부터 2년간 서서히 상승할 전망이며 물가변동성 위험은 극히 제한적임

— 그러나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민간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분야 재무조정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

- 아울러 신흥시장 및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, 그리고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유로지역에 악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음

☐ **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014년 6월 물가안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**

— 먼저, 물가수준이 2% 근접할 때까지 모든 주요 정책금리를 낮추었음

-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재할인율은 0.15%, 예금지급준비율은 마이너스 수준인 (-)0.1%까지 낮아짐

—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2014년 9월 장기금융프로그램인 TLTRO(Targeted Long-term Refinancing Operations)를 시행할 예정임

- 이로 인해 유로지역 은행들은 가계 주택구입을 제외한 민간 비금융산업에 재대출 지원을 한다는 전제하에 유로시스템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

* Mario Draghi ECB 총재가 지난 2014년 7월 14일 유럽의회에서 한 연설문을 요약, 정리하였음
http://www.ecb.europa.eu/press/key/date/2014/html/sp140714.en.html

- TLTRO 시행으로 은행권의 추가적인 여신확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자금조달비용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됨
- 추가적인 조치 발표 이후 이미 채권수익률과 단기자금시장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— 아울러 ABS(Asset Backed Securities)시장에서 직접매입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증권시장에서 주별(weekly)로 시행되었던 유동성 투입 프로그램은 중지하기로 함

- 적어도 2016년까지 은행 유동성 수요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도록 재금융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임

— 이러한 추가적 정책들로 인해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경제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임

- 특히 지금까지 대출조건이 엄격히 적용되어 왔던 소규모 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됨

□ **향후 5년간 유로지역은 민간 및 공공부문의 높은 부채수준과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합의하였던 정책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**

— 아직도 금융부문의 성과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유로지역의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관련 입법활동에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

- 균형과 안정을 유지해나가면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해 나가야 함

— EU와 Bank of England가 공동으로 발간해 온 EU 증권시장선진화 방안 등을 기반으로 시장통합을 위한 규제환경을 조화시켜나가야 함

-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은행부문의 구조와 감독, 그림자 금융(shadow banking) 규제와 관련된 논의도 계속해나가야 함

— 나아가 유럽경제통화공동체(EMU)를 달성하기 위한 논의로 진전시키기를 바람

"We should bear in mind that Economic and Monetary Union still remains an incomplete structure. Let us seize the opportunity of a new Parliament and a new Executive to reflect further on how to develop the architecture of our EMU in order to enhance its functioning."

- Mario Draghi -

〈문의〉 T (02) 3771-0667 / E changph@kcmi.re.kr